생명나눔실천본부 “캄보디아 아이들 꿈 응원”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7. 생명나눔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시엠립 고아원 방문 현장 下

6월 11일, 아동 40명 거주시설에
다양한 후원물품 · 태권도복 선물
태권도 시범으로 눈길 사로잡아

일면 스님 “희망 씨앗 되길” 염원
한명우 대표, 한 명 한 명에 염주
마하무용단 즉석서 후원금 전달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 방문,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일면 스님은 이날 생명나눔의 방문이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했다.

캄보디아 시엠립=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 위치한 고아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나눔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자비 손길을 내밀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이사, 정현숙 마하무용단장과 단원들, 성명용 한국집 대표, 박범진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이 방문한 고아원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4세부터 18세까지 40명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아동 3명이 거주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의료 재활 서비스 등이 절실한 곳이다. 캄보디아 시엠립에는 34개의 고아원이 있지만 정부지원을 받은 곳은 이날 방문한 고아원 한 곳 뿐이다. 지원이 늘 부족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원장 포함 6명의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후원을 더 받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아동들이 원한다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장학금 모연에도 힘쓰지만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이날 한국에서 온 손님들로 고아원은 모처럼 활기가 넘쳐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온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아동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후원물품에는 다양한 학용품을 비롯해 인형, 체육용품 등이 담겼다.

특히 이날은 (사)세계행복나눔태권도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발원하며 태권도복 50벌을 선물해 아이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무더운 날씨를 감안해 반팔 반바지로 제작된 태권도복이다. 세계행복나눔태권도는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단체다. 해외 저개발 국가 아이들과 국내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태권도 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말라위와 부르키나파소 등 아프리카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태권도 관련 재능 기부로 각종 축제와 문화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로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준비한 후원물품에는 다양한 학용품을 비롯해 인형, 체육용품 등이 담겼다.



물품 전달과 함께 태권도 시범이 열려 아동들은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장애 아동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염원했다.



일면 스님은 아동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유학오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박범진 세계행복나눔태권도 회장이 먼저 직접 발차기와 격파를 보이자 아동들 입에서 “와우” 하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박범진 회장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라고 소개하며 “발차기를 중심으로 손과 발, 기타 신체부위를 이용해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박 회장의 태권도 시범을 유심히 살핀 아동들은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발차기를 따라 하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다. 특히 힘껏 기합을 넣으며 준비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아동들이 태권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본 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선일 스님은 “아동들이 태권도 하면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겠다”면서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태권도도 익혀 꼭 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일면 스님은 “오늘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방문으로 전달된 학용품과 도복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캄보디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아동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큰 일꾼이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사 후 일면 스님과 동참자들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하며 한 명 한 명의 손목에 염주를 끼워줬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유학오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도 중증 장애 아동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부처님 가피가 함께하길 염원했다. 마하무용단은 즉석에서 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캄보디아 주민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2차 공동모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될 모연금은 학용품과 의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